

여수에 600만배럴 원유저장고 건설

오일탱킹KNOC, 전라남도와의 협약 ... 3억3000만달러 투입 2012년 운영

전라남도 여수에 600만배럴 규모의 원유 및 석유제품 저장시설이 세워진다.

오일탱킹KNOC은 1월20일 박준영 도지사와 오현섭 여수시장의 참석하에 <동북아 오일 허브 여수 시범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오일탱킹KNOC은 한국석유공사의 여수 비축기지 부지 21만1000㎡에 총 3억2000만달러(외자 2억7100만달러 포함)를 투자해 600만배럴 규모의 상업적 유류(원유 및 석유제품) 저장시설을 건설·운영할 방침이다.

오일탱킹KNOC은 국내외 5개 석유화학기업의 신설 합작법인으로 한국석유공사, SK에너지, GS칼텍스 등 국내기업 3곳과 스위스의 Glencore, 독일의 Oil Tanking 등 외국기업 2곳이 참여하고 있다.

오일탱킹KNOC은 2009년 2월 조사·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2012년 초까지 건설공사를 완료 후 201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상업운전을 개시할 계획이다.

<동북아 오일 허브 구축>은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08년 9월 5개 기업이 합의한 투자계약을 전라남도와의 협약으로 공식화했다.

박준영 전라남도 도지사는 “오일 허브 시범사업을 통해 동북아의 석유 소비 증가와 고품질 저장시설 확충, 안정적 석유 수급을 통한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1/20>